

numbers 제 75호



주요 내용

2020. 12.11

1. 이번 주 주제 : [한국인의 미래 종교 인식]
 - 개신교인 '인공지능 설교 반대한다' 65%
2. 최근언론보도 통계: [세계와 한국의 코로나19 현황]
 - 세계 코로나19 확산 상황, 11월 중순 이후 다소 주춤세
 - 한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향률(83%)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높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기독교 통계

개신교인, ‘인공지능 설교 반대한다’ 65%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최근 발표되는 통계 자료로 미뤄볼 때 디지털 전환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이는 필연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가 종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미래 종교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에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미래종교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 발표했는데, 그동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미래 종교를 일반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던 상태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앞으로 미래 종교가 쇠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발전이 종교를 위협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인식해 과학이 종교의 영역을 침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공지능이 아무리 우수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를 반대하는 개신교인이 6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 75호는 세계 종교 추세와 함께 한국인의 미래 종교 인식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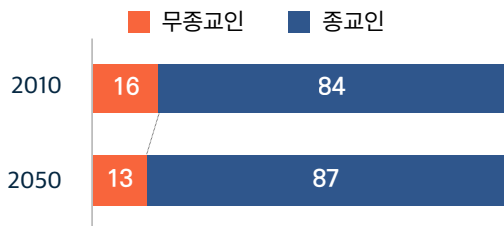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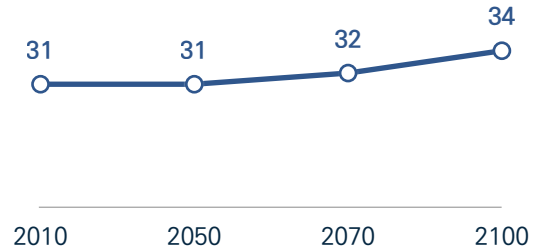
세계 종교 인구, 향후 계속 증가가 예상됨

- 미국 리서치재단인 퓨리서치가 발표(2015년)한 미래 종교 예측 결과에 따르면 세계 종교 인구 비율은 2010년 84%에서 2015년 87%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기독교 비율 역시 미미하지만 2100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됨

[그림] 2010-2050년 세계 인구 변화 예상 (종교인 비율 vs 무종교인 비율) (%)



[그림] 세계 기독교인 비율 연도별 예측 추이 (전세계 인구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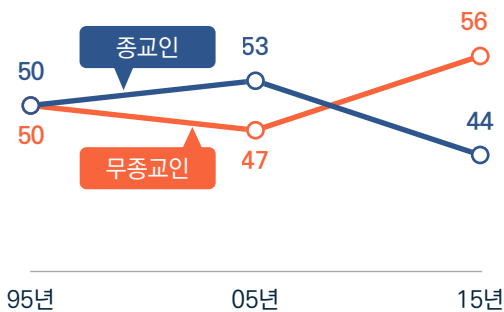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Pew Research Center, 'The Future of Religions : Population Growth Projections, 2010-2050', 2015. 4.15

● 한국은 세계 종교 추세와 달리 탈종교 사회로 진입한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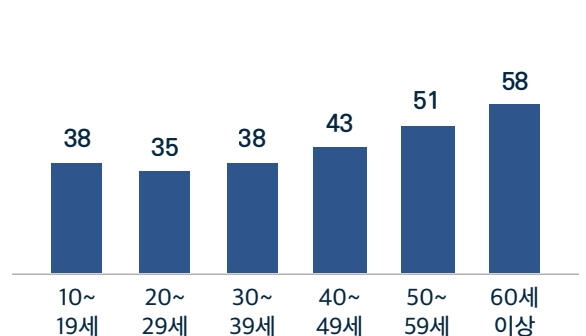
-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센서스 조사 결과 기준 한국은 2005년에 종교인이 무종교인보다 많았으나, 2015년에는 무종교인이 많아져 역전된 상황이 됐으며, 2005년 이후 무종교인 상승 곡선이 다소 빠르게 올라가고 있음
- 종교인 비율의 특징 중 하나는 연령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임 즉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인 비율이 낮아 미래 한국 종교는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임

[그림] 종교 인구의 변화 추이 (%)



* 자료 출처 : 통계청, '2015년 인구센서스 조사', 2016.9.7

[그림] 연령별 종교인 비율('믿고 있다' 응답률) (%)



* 자료 출처 : 통계청, '2015년 인구센서스 조사', 201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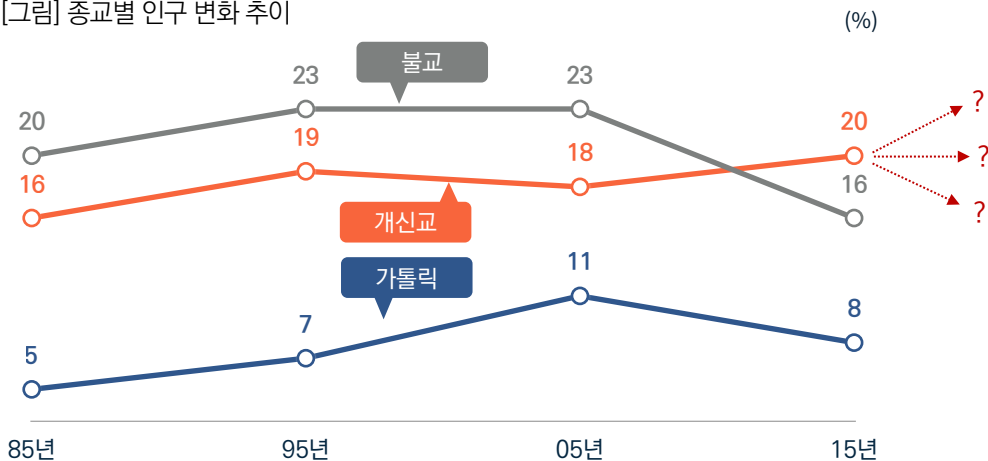
2



개신교는 총 인구 중 그 비율이 하락하지 않으나, 최근 수년간 신뢰도 저하로 향후 고전이 예상됨

- 2005년 대비 2015년의 종교인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불교가 급감하고 개신교가 약간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남
- 그러나 최근 들어 개신교 신뢰도 하락, 코로나19로 인한 개신교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 등의 대외적 지표가 긍정적이지 않아, 향후 고전이 예상됨

[그림] 종교별 인구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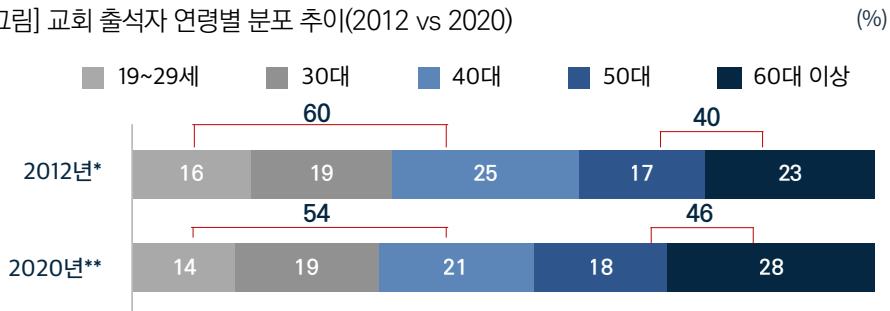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통계청, '2015년 인구센서스 조사', 2016.9.7

● 교회 출석자 중 20대(14%)가 60대 이상(28%)에 비해 절반 밖에 안돼, 미래 개신교 성장에 큰 Huddle(저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 간 교회 출석자의 연령별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40대 이하 젊은 층이 60%에서 54%로 줄은 반면, 50대 이상 고연령 층은 40%에서 46%로 늘은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교회 출석자의 절반 가까이가 50대 이상 고령 층이 차지하고 있는데, 20대 청년 1명과 60대 이상 고령자 2명 비율로 교회 출석하고 있음

[그림] 교회 출석자 연령별 분포 추이(2012 vs 2020)



* 자료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인의 종교와 신앙의식조사' 2013.02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일대일 개별 면접, 2012.10.)

** 자료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개신교인 프로파일 조사'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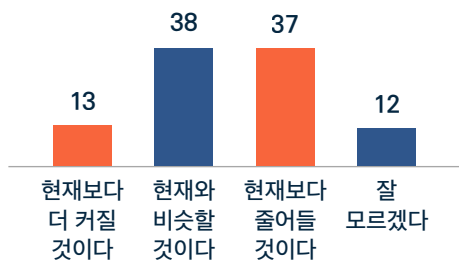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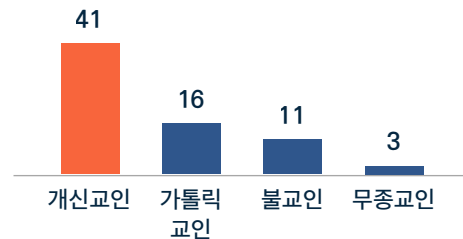
20-30년 후 미래 종교 필요성, '현재보다 줄어들 것' 37% > '현재보다 더 커질 것' 13%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30년 후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는데, '현재보다 줄어들 것' 37%, '현재보다 더 커질 것' 13%로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예상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보다 3배 가까이 높음
- 특히 종교별로는 개신교인만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타종교인 및 무종교인들은 '현재보다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응답이 더 높음
- 이러한 결과는 국내 종교인 중에 개신교인이 타종교인보다 가장 종교성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미래 사회에 한국 종교를 개신교가 대표 종교로서 이끌고 가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

[그림] 20-30년 후 종교 필요성 예상 (%)



[그림] 종교인별 20-30년 후 종교 필요성 예상 (현재보다 더 커질 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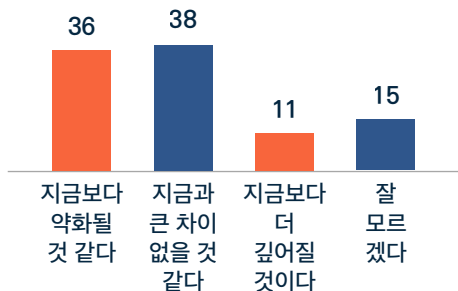


*자료 출처: 예정합동총회, 'WITH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2020.11.03.(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 081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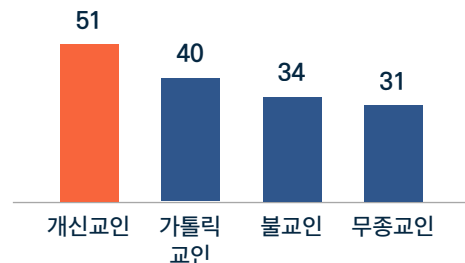
● 20-30년 후 미래 사람들의 종교심, '지금보다 약화될 것' 36% > '지금보다 더 깊어질 것' 11%

- 종교 필요성에 이어 20-30년 후 사람들의 종교심 예상을 질문하였는데, '지금보다 약화될 것' 36%, '지금보다 더 깊어질 것' 11%로, 종교심이 약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높음
- 종교별로는 '개신교인'이 타종교 또는 무종교인 중 가장 미래사람들의 종교심에 대해 비관적으로 봄

[그림] 20-30년 후 미래 사람들의 종교심 변화 예상 (%)



[그림] 20-30년 후 미래 사람들의 종교심 '약화될 것 같다' 응답률(종교인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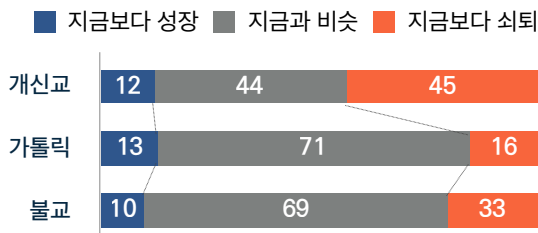


*자료 출처: 예정합동총회, 'WITH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2020.11.03.(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 081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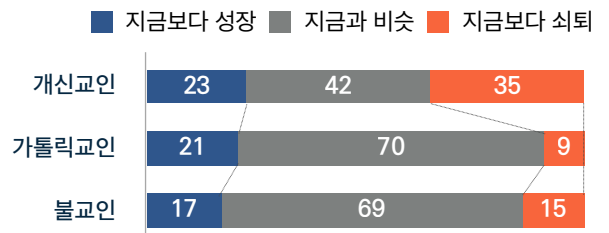
● 20-30년 후 국내 주요 종교 모두 쇠퇴 전망 우려

- 20-30년 후 각 종교의 성장과 쇠퇴를 질문한 결과, 4개 종교 모두 '쇠퇴할 것 같다'는 의견이 '성장할 것 같다'는 의견보다 높았는데, 종교별로 '성장'을 예상한 응답은 '가톨릭' 13%, '개신교' 12%, '불교' 10% 등 10% 안팎으로 낮게 나타남
- 반면에 '쇠퇴' 의견은 '개신교' 45%, '불교' 22%, '가톨릭' 16% 등의 순으로, '개신교'의 쇠퇴 전망이 가장 높음
- 종교인별로 자기 종교의 성장/쇠퇴 의견은 '개신교인'의 성장과 쇠퇴 응답 모두 '불교인'이나 '가톨릭교인'보다 더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임

[그림] 20-30년 후 종교별 성장/쇠퇴 예상 (%)



[그림] 종교인별 자기 종교 성장/쇠퇴 예상 (%)



*자료 출처 : 예장합동총회, 'WITH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2020.11.03.(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 081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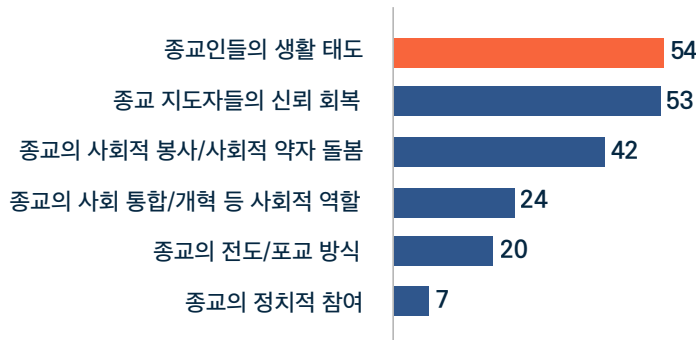
4



미래 사회 종교 이미지 형성, '종교인'과 '종교 지도자'가 좌우!

- 미래 사회에서 종교 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질문한 결과(1+2순위), 우리 국민들은 '종교인들의 생활 태도'(54%)와 '종교 지도자들의 신뢰 회복'(53%)을 가장 높게 꼽았고, 다음으로 '종교의 사회적 봉사/사회적 약자 돌봄' 42%, '종교의 사회 통합/개혁 등 사회적 역할' 24% 등의 순으로 응답해, 종교 지도자와 종교인이 미래 종교 이미지에 결정적이 요인으로 언급함

[그림] 미래 사회 종교 이미지의 가장 큰 영향 요인(1+2순위) (%)



*자료 출처 : 예장합동총회, 'WITH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2020.11.03.(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 081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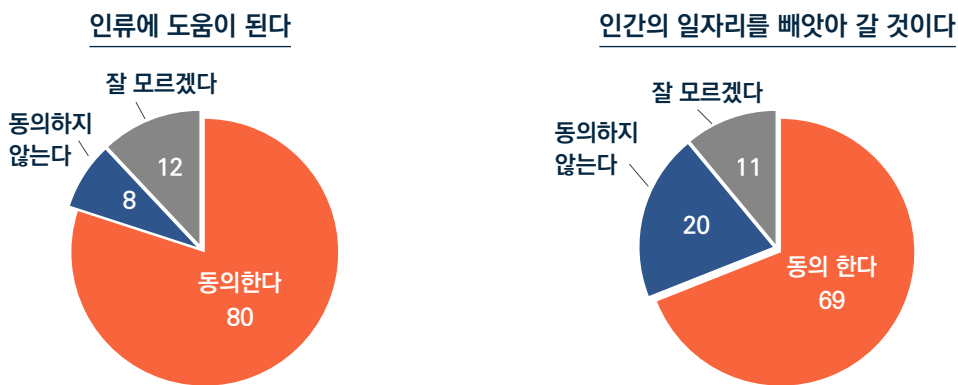
5



4차 산업혁명/과학의 발전, 인류에 도움되지만(80%),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다(69%)

- 4차 산업혁명/과학 발전이 '인류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 80%, '동의하지 않는다' 8%로, 대부분의 국민이 4차 산업혁명이 인류에 도움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과학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 69%, '동의하지 않는다' 20%로, 인류에 도움은 되지만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라는 위협요인으로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차 산업혁명/과학의 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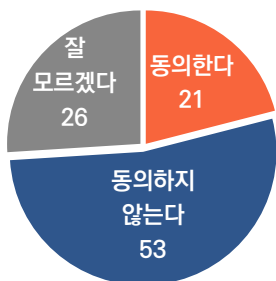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예장합동총회, 'WITH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2020.11.03.(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 081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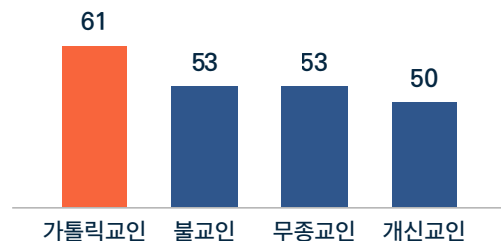
● 과학 발전, '종교를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다' 53%

- 과학 발전의 종교 영향도를 알아보기 위해 '과학 발전이 종교를 위협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 21%, '동의하지 않는다' 53%로 과학 발전이 종교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과학의 발전이 종교를 위협할 것이다' 응답률 (%)



[그림] '과학 발전이 종교를 위협할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비율, 종교인별) (%)



*자료 출처 : 예장합동총회, 'WITH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2020.11.03.(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 0813~2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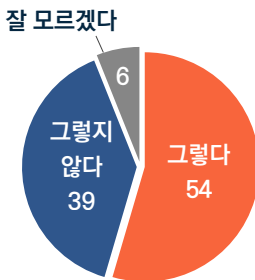


인공지능의 인류 위협, 국민 인식은 긍정과 부정으로 나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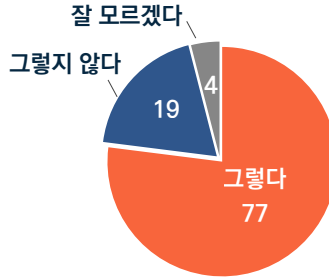
- 인공지능과 관련, '인공지능의 창의성은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만 못하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다' 54%, '그렇지 않다' 39%로 인간의 창의성을 인공지능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높음
- 그러나 '인공지능이 인간의 많은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77%가 '그렇다'고 응답해 일자리 측면에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음
- '인공지능은 결국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에 대해 '그렇다' 47%, '그렇지 않다' 44%로 표본오차 안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아직 우리나라민들은 인공지능의 인류 위협에 대해 어느 한쪽으로 정리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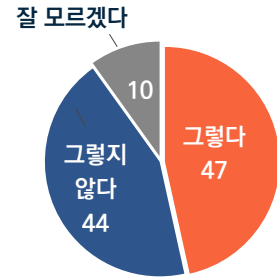
인공지능의 창의성은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만 못하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많은 일자리를 없앨 것이다



인공지능은 결국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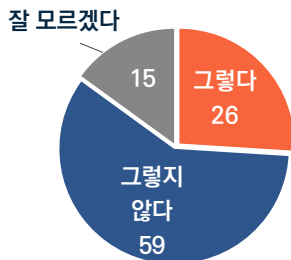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예장합동총회, 'WITH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2020.11.03.(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 0813~20)

**4점 척도 질문으로 '그렇다'는 '매우+별로', '그렇지 않다'는 '매우+약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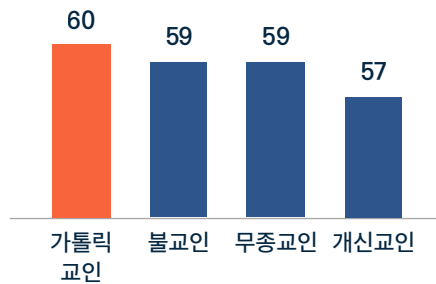
● 우리 국민은 종교 영역을 인공지능이 넘어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높음

- 미래사회 인공지능의 종교 영향도를 알아보기 위해 '인공지능이 결국 종교를 위협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그렇다' 26%, '그렇지 않다' 59%로, 종교 영역을 인공지능이 넘어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높음

[그림] '인공지능은 결국 종교를 위협할 것이다' 응답률 (%)



[그림] '인공지능은 결국 종교를 위협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비율, 종교인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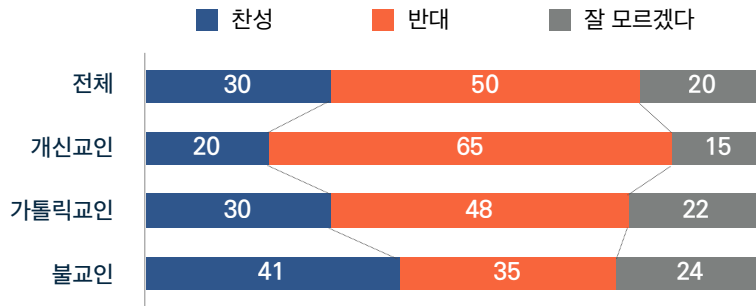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예장합동총회, 'WITH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2020.11.03.(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 0813~20)

**4점 척도 질문으로 '그렇다'는 '매우+별로', '그렇지 않다'는 '매우+약간' 수치임

● 개신교인, '인공지능 설교에 반대한다' 65%

- 인공지능이 설교 또는 설법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찬성' 30%, '반대' 50%로 우리 국민 절반이 인공지능 설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종교별로 보면 '개신교인' 3명 중 2명 정도(65%)가 인공지능 설교에 '반대한다'고 응답해 제일 높았고, 반면 '불교인'은 '찬성한다' 41%, '반대한다' 35%로 주요 세 종교 중 유일하게 찬성율이 높았음

[그림] 인공지능이 설교/설법하는 것에 대한 찬반 (%)



*자료 출처 : 예장합동총회, 'WITH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2020.11.03.(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 0813~20)

**4점 척도 질문으로 '찬성'은 '매우+별로', 반대는 '매우+약간' 수치임



시사점

전세계 종교 인구는 늘고 있는데 한국의 종교 인구가 줄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종교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종교 인구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미래에는 종교심이 약화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강해서 미래의 종교 인구가 감소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미래 사람들의 종교심이 약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높았는데, 개신교인이 다른 종교인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신교인들은 왜 종교심이 약화된다고 생각할까? 종교인구 감소가 주로 북미와 유럽 등 고도산업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넘버즈 58호, 2020.07.31. 참조), 이들 대부분은 개신교인이라는 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이래 산업국가에서는 과학적 지식의 발달로 말미암아 세계관이 바뀌었다. 물리학과 천문학 그리고 생물학 등이 발달하면서 신(神)의 작용이라고 생각했던 자연 현상이 실은 신의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 인식되면서 기존의 종교적 세계관에 기반을 둔 현실 세계 인식이 깨졌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되는 것도 더 이상 신의 영역에 남겨두지 않고 끌어내려서 그냥 밝혀지지 않은 사실로 치부하였다. 그러므로 종교심은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둘째로 다종교 사회가 되면서 기독교가 더 이상 공적 영역에서 우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위헌으로 금지된 것처럼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역할은 점점 사라지고 종교는 사적 영역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래서 종교가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종교심은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셋째로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도 다원주의가 들어오면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으면서 순종해야 할 권위가 사라졌다. 일찍이 그리스 철학자인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했지만, 근대 이전의 세계는 전통과 공동체가 혹은 가부장적 권위가 만물의 척도였다. 하지만 근대 세계 들어서 '개인'이 발견되고 개인을 존중하게 되면서 만물의 척도가 '내'가 되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내게 유익이 없는 것은 별 거리낌없이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넷째로 인터넷의 발달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1인 1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이라는 거대하고 강력한 환경에 지배당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비대면 비즈니스를 하는 주요 기업들을 소개하는 '플랫폼제국의 미래'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정리하면 인터넷이 미국인이 종교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유의 1/4을 차지한다. 지구상 인류는 현재 하루 35억 번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여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구글에게 질문을 한다. 그럼 현대판 '신(神)' 구글은 즉각적으로 답을 해준다. 구글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대답이 돌아온다. 사람들은 구글을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에 응답하는 21세기의 새로운 신'이라 말한다.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발전하는 여가/레저문화 활동 등과 함께 인터넷이 급속하게 대체종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로는 신앙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 과학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젊은 세대가 납득하도록 설명해 주어야 한다. 신앙과 맞지 않다고 과학을 멀리하거나 배척할 것이 아니고 신앙과 과학의 역할 및 관계 인식을 높여 주어야 한다. 둘째로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에 던져진 아젠



시사점

다 중 하나가 교회의 공적 역할이다. 지역사회를 진정으로 섬김으로 기독교의 실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키우고 경외심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로는 개인을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올바른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 '전통'이나 '인간의 권위'가 성경의 가르침으로 둔갑한 것은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신앙에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성숙한 문화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또 하나 발견 사항은 미래 종교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인 전체 인식은 현재보다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높았다. 그런데 의외로 개신교인만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타종교인과 무종교인들은 '현재보다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응답이 더 높았다(5쪽). 이러한 결과는 국내 종교인 중에 개신교인이 타종교인보다 가장 종교성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미래 사회에 한국 종교를 개신교가 대표 종교로서 이끌고 가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탈종교사회로 진입했으나,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넘버즈 61호. 2020.08.28. 참조), 종교성이 약화되는 시대에 1위 종교로서 종교성이 가장 강한 개신교가 한국 종교를 지탱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대적 책임을 갖고 있다. 타 종교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시대 한국 개신교가 이 땅에 기독교 가치와 정신을 스며들게 하는 기회가 오고 있다는 역설이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세계 코로나19 확산 상황, 11월 중순 이후 다소 주춤세
2. 한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향률(83%)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높음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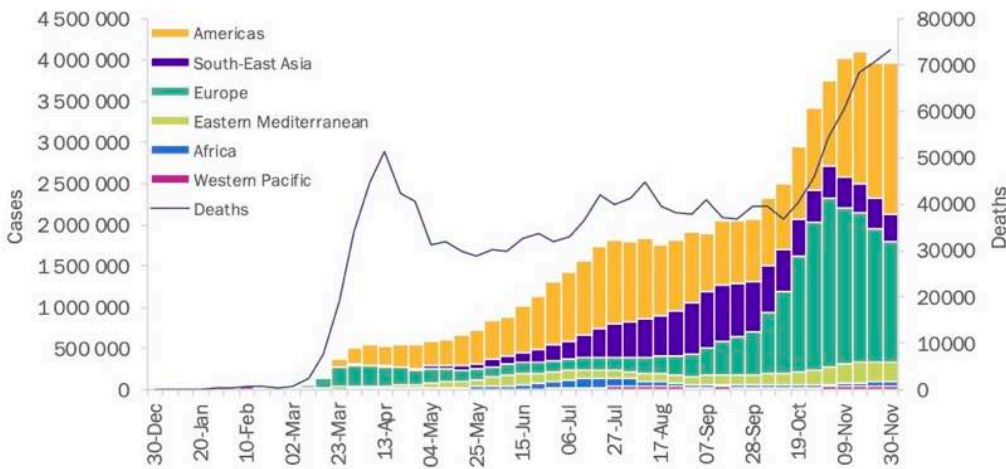
1



코로나19 세계적 확산 상황, 11월 중순 이후 다소 주춤세

- 세계 코로나19 상황 관련, 총 확진자 수는 11월 중순 이후 다소 주춤거리는 양상을 보이나, 사망자 수는 10월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 11일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889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는 157만여 명에 달함 (출처 : 중앙대책본부)

[그림] 세계 코로나19 상황 추이(12월 1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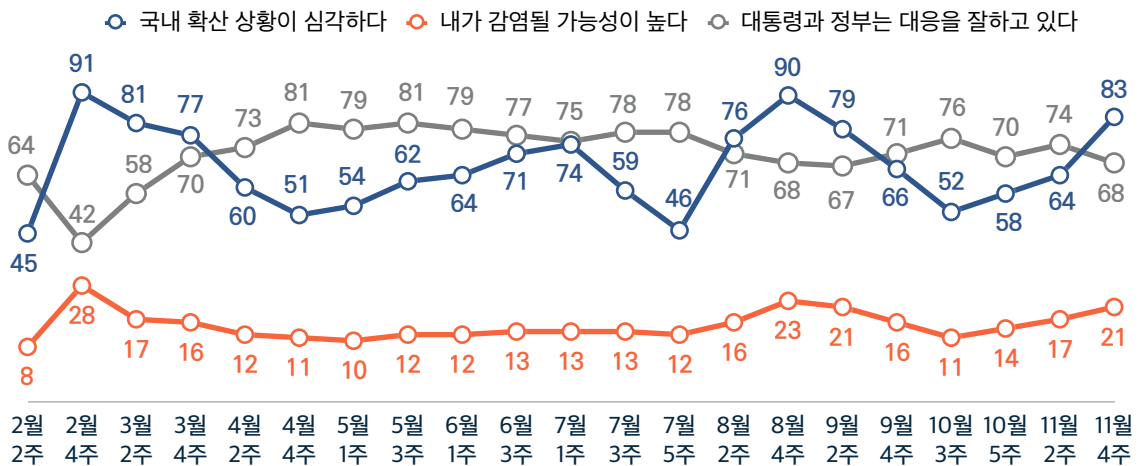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WHO, COVID-19 Weekly Epidemiological Update, 2020.12.08
 ** note) 막대그래프 : 확진자 수, 꺾은선그래프 : 사망자 수

● 한국 상황, 11월 말 기준 코로나19 ‘심각하다’ 83%

- 국내 코로나19 관련 국민들의 ‘심각하다’는 인식은 11월 말 기준 83%까지 치솟았는데, 2차 유행기 정점인 8월 말의 90%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12월 초 이후 거의 매일 확진자 수가 600명이 넘어서는 현재 시점은 더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됨

[그림] 코로나19 상황 인식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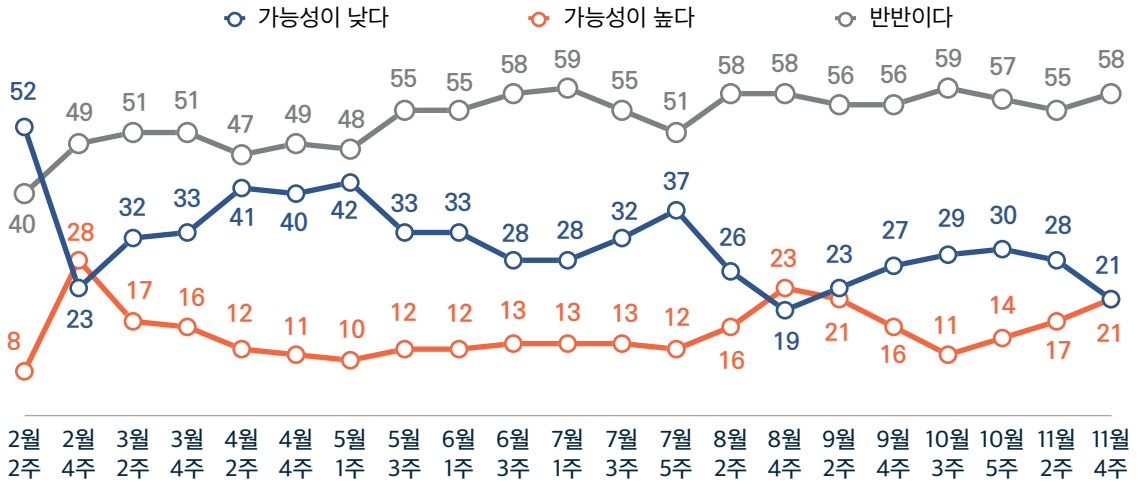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코로나19 상황인식 및 정부대응평가(2020년 11월 4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0.11.27.~30.)

● 본인 감염 가능성 ‘있다+반반’ 79%

- 본인 감염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 ‘있다’ 21%, ‘반반’ 58%, ‘낮다’ 21%로 전체 국민의 79%가 본인 감염성에 대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있다+반반)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본인 감염성 인식 추이 (%)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코로나19 상황인식 및 정부대응평가(2020년 11월 4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0.11.2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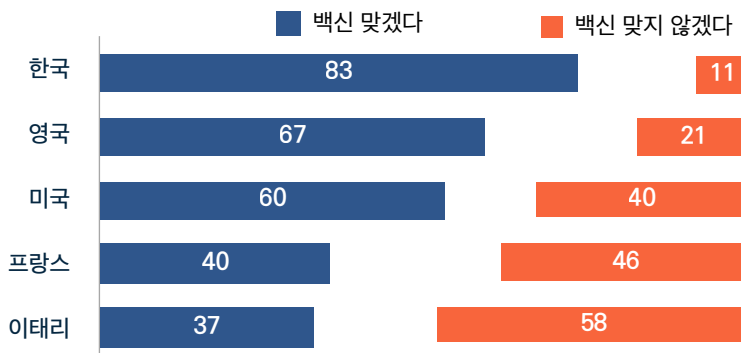
2



한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향률(83%)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높음

- 영국에서 12월 8일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미국도 곧 시작되는 분위기 속에 한국인들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예방 접종 의향은 83%로 대부분의 국민이 백신이 나올 경우 접종하겠다고 응답함
- 반면,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접종 의향률이 낮는데, ‘미국’ 60%, ‘영국’ 67%, ‘프랑스’ 40%, ‘이태리’ 37%의 의향률을 보였으며, 미국보다 유럽이 상대적으로 의향률이 낮음

[그림] 주요 국가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향률 (%)



*자료 출처 : 1) 한국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코로나19 상황인식 및 정부대응평가(2020년 11월 4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0.11.27.~30.)

2) 미국 : 매일경제, "백신 불신론 커지는 美, 10명 중 4명 안맞겠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12/1257771/>)

3) 유럽 - 조선일보, 2020.11.20. "프랑스인46% 이탈리아인58% "백신접종 당장 안한다" 불신 심각"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europe/2020/11/20/14PTQGQ57VBITLWVBT6ANAULLA/>)

● 한국인, 백신 맞겠다는 이유 1위, ‘가족 감염 막기 위해’ 82%

- 한국인들이 백신을 맞겠다는 이유(1+2위)는 ‘가족이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82%, ‘본인 감염을 막기 위해’ 78%, 코로나 ‘고위험군이라서’ 15% 등으로 나타남
- 자신보다 가족을 더 먼저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마음이 읽혀지는 대목임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코로나19 상황인식 및 정부대응평가(2020년 11월 4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0.11.27.-30.)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사
회

일
반

[하루 자살 시도 90명, “자살시도자의 45%가 재시도자](#)

중앙일보_2020.12.12.

[45세에 노동소득 가장 많아...59세부터는 '적자 인생'](#)

연합뉴스_2020.12.07.

[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 통계 발표](#)

매일경제_2020.12.10.

[한국 학생 수학·과학 성적 국제 2~4위...자신감·흥미 '꼴찌'](#)

뉴스1_2020.12.08.

["새터민 여성 39%, “남한에서 발음과 억양으로 놀림 당했다”](#)

연합뉴스_2020.12.05.

코
로
나
1
9

[청년들 '코로나 블루' 심각...‘극단적 선택’ 충동, 10배 늘었다](#)

경향신문_2020.12.07.

[IMF 때로 추락한 영화 관객 수... “비디오방 전략할 판”](#)

조선일보_2020.12.10.

[학원강사 27% "코로나 이후 실직"...실업급여 혜택 4% 불과](#)

연합뉴스_2020.12.06.

[코로나19, 알바에 직격탄...고용주 52% "알바생 줄였다"](#)

중앙일보_2020.12.09.

[소득 상위층 코로나 기간 동안 자산 17% 증가](#)

머니투데이_2020.12.06.

경
제

[당근마켓 올해 거래 1조 육박 비결은.. "동네사람인데 속이겠어"](#)

매일경제_2020.12.04.

[바람직한 회의문화, 직장인 1000명 조사](#)

조선일보_2020.12.07.

[한국, 지난해 R&D에 약 89조 투자...“OECD 국가 중 세계 5위”](#)

연합뉴스_2020.12.09.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1-33호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함께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33-58호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다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 제 56호 | 우후죽순 '○○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임금, '8,720원'
-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59-75호

-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아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등 교사’ 75%
-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했다’
- 제 62호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제 63호 |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미래통합당)’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 제 64호 |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 대비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다 | 올 추석에 어른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87%)
- 제 65호 |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점심시간 12분, 2분 50초마다 1개 물량 처리’ |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 우리 국민 추석, ‘부담/염려 더 큼’ 60%
- 제 66호 |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 | 한국인의 91%, ‘현재 고민거리 갖고 있다!’
- 제 67호 |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 코로나19 우울증 진단, 20대 여성 전년 대비 38% 증가,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앱 ‘줌(ZOOM)’ 이용자, 9월 한 달간 707만 명으로 역대 최대!
- 제 68호 | 트로트 전성시대! |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생활의 변화 ‘체중 증가/운동량 감소’,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유튜브’ 1위
- 제 69호 |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 예배 드리지 않은 개신교인’ 증가세! | 전 세계 국민의 86%,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크게 변화하기를 원해!, 미국인,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역대 가장 높아!
- 제 70호 | 한국 개신교인의 ‘공교회 인지도’, 19%만 공교회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OECD 31개국 중 29위로 최하위권!
- 제 71호 | 대한민국 불법 도박, 연간 81.5조 원의 대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 2020년 신규 주식 계좌 연령, ‘2030세대’ 57% 차지!
- 제 72호 | 남성 육아,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89%) ‘필요하다’ | ‘코로나 불안도’ 61%,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의 불안감 보임
- 제 73호 | 우리 국민, ‘비혼 출산 찬성’ 31%, ‘비혼 동거 찬성’ 60% | 올해 한국인, 작년보다 ‘신체·정신 건강 모두 나빠졌다!’ | 조직의 리더로 갖추어야 할 조건과 자질 1위, ‘책임감’ 54%
- 제 74호 | 우리 국민, ‘비혼 출산 찬성’ 31%, ‘비혼 동거 찬성’ 60% | 올해 한국인, 작년보다 ‘신체·정신 건강 모두 나빠졌다!’ | 조직의 리더로 갖추어야 할 조건과 자질 1위, ‘책임감’ 54%
- 제 75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재)기독교선교햇불,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 CBMC 행복한지회 (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 벽산,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 트로인, (주)하츠,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영선, 이완종,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치영, 정종섭, 정준,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현,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가나다순)

신규 후원자 | 박진규, 홍혜숙

특별 후원 | (주) 그랑블루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

김은선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햇불회